

백승호 더비 승자는 전북... 수원 꺾다

최보경·일류첸코·바로우 득점
3-1 승... 개막 7경기 '무패' 선두

프로축구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백승호 더비'에서 수원 삼성을 꺾고 개막 7경기 무패행진을 달렸다. 전북은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의 하 나원큐 K리그 2021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최보경, 일류첸코, 바로우의 연속 득점으로 3-1 완승을 거뒀다. 이번 시즌 개막 후 7경기 무패(5승2무)인 전북은 승점 17점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전북은 K리그 5연패에 도전한다. 또 수원의 상대 전적에서도 32승23무30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지난 2017년 11월19일 2-3 패배 이후 10경기 연속 무패(8승2무)다. 반면 개막 5경기 무패(3승2무)를 달리다 지난 달 21일 FC서울과의 슈퍼매치(1-2 패)에서 첫 패배를 당한 수원(승점 11)은 전북에 저 2연패에 빠지며 선두권 경쟁에서 밀려났다. 논란의 주인공인 백승호가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전북은 구스타보를 원투에 세우고 2선에 바로우, 김보경, 이승기, 이지훈을 배치했다. 중원은 최영준이 맡고 수비는 최철순, 최보경, 홍정호, 이용이 지켰다. 골키퍼 장갑은 송범근이 썼다. 수원은 제리치와 함께 2세 이하(U-22) 자원인 강현욱이 투입에 섰다. 무서운 신에 정상빈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수원 하나원큐 K리그1 2021 7라운드에서 전북 최보경이 처 반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은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다. 또 이기재, 김민우, 한석중, 고승범, 김태환, 박대원, 최정원, 장호의, 양형모가 선발로 뛰었다. 수중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는 키오프 전 백승호의 전복행을 비판한 수원 팬들의 걸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기장 안에서의 충돌도 거셴다. 양 팀 모두 빠른 속도로 공격을 전개하며 선제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균형을 잡기가 됐다. 수원의 공세에 흔들리던 전북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전반 20분 코너킥에서 이승기가 올린 크로스를 최보경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0-1로 끌려간 수원은 후반 8분 강현욱 대신 김건희를 투입하며 이른 시간 승부수를 던졌다. 또 후반 18분에는 고승범을 빼고 니콜라오를 내보내며 공격 숫자를 늘렸다. 하지만 니콜라오가 투입된 지 8분여 만에 부상으로 쓰러지며 베테랑 열기훈이 들어갔다. 어수선한 흐름 속에 전북이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8분 이용의 크로스를 일류첸코가 헤더로 방향으로 바퀴 성공했다. 일류첸코는 4경기 연속골이자 정규리그 5호 골로 득점 랭킹 단독 1위를 달렸다. 기세가 오른 전북은 후반 35분 바로우의 패기골로 수원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상대 문전에서 일류첸코가 내준 패스를 바로우가 왼발 슈트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트렸다. 이후 전북은 골키퍼 송범근을 U-22 자원인 김정훈으로 교체하는 여유를 보였다. 수원은 후반 추가시간 김태환이 최철순의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열기훈이 차 넣으며 연패를 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뉴시스



폭력, 이제 'NO'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대상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 진행

내장산 단풍과 옥정호 구절초(한국 관광 100선 선정)가 아름다운 정읍시가 폭력 없는 깨끗한 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정읍시청 소속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 범죄·가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폭력 없는 깨끗한 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수들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북도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소속 최선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모든 체육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폭력과 폭언 금지, 사생활 보호, 자아실현과 더불어 성폭력과 성인지 개선 교육도 동시에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국내 프로 선수 등 체육계 내 폭력행위 문제에 대한 사회의 자성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수 인권 침해 예방과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PO 대비' 정규리그 우승 KCC
원주 DB전서 73-93으로 패배

잔여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전주 KCC가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하며 플레이오프에 대비했다. KCC는 지난 3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73-93으로 패배했다. 앞서 2015~2016시즌 이후 5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KCC(35승17패)는 4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데 집중했다. 6강을 거치지 않고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KCC는 정규리그 4위-5위의 6강 플레이오프 승자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다툰다. 이날 전창진 감독은 로스터에 포함된 12명을 모두 활용하며 다양하게 실험했다. 12명 대부분의 출전시간이 10분 남짓으로 비슷했고, 유력한 최우선수선(MVP)인 송교창(13점 2리바운드)은 24분23초를 소화했다. DB는 안테 메이튼(22점), 허웅(19점)을 앞세워 3연승을 달리며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뉴시스

체육 교류 협력

전북체육회-강원체육회

전북도체육회와 강원도체육회가 체육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양회 회장 등 강원체육회 임원들이 전북체육회를 방문,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북과 강원 더 나아가 한국 체육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체육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학교체육이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정강선 회장은 "소통과 화합,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동반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지난 2일 정강선 전북체육회회장(사진 오른쪽)과 양희구 강원체육회회장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키움 박병호, 올 시즌 1호 타점 주인공

키움 히어로즈 간판 타자 박병호가 2021 신한은행 솔 KBO리그 첫 타점의 주인공이 됐다. 박병호는 지난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에서 1회말 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 0-0으로 맞선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는 삼성 선발 데이비드 뷰캐넌의 초구를 받아쳐 우중간을 꿰뚫는 2루타로 연결했다. 발 빠른 2루 주자 이용규가 홈을 밟기엔 충분한 타구였다. 이 안타 덕분에 박병호는 올 시즌 KBO리그 1호 타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1회말 키움 선두타자로 등장한 이용규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1호 안타를 기록했다.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후속타자 프레이타스는 첫 삼진자가 됐다. /뉴시스

남원시

2021 남원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제안 공모

공모기간 | 2021. 3. 2.(화) ~ 5. 31.(월)

공모자격 남원시민 누구나

공모주제 남원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전반

공모분야

- 남원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 남원시 인구늘리기 정책(저출산 해결, 청년정책, 인구유출 방지 등)
- 남원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반

참여방법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 방 문 :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13)
- 우 편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제안담당자(우 55738)
- 이메일 : jic1993@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등(남원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시상내역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